

이다. 이대로 한다면 율법적 질서는 물론이요, 민족적 존립도 위협을 받게 된다.

끝으로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한다(마태 5, 44).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 즉 “동족에게 앙심을 품어 원수를 갚지 마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아껴라”라는 말과 유사하다. 그런데 구약에는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 말은 없다. 그러나 구약은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 미움을 행동으로 실천했으며, 실제로 그 정당성을 하느님의 뜻으로 뒷받침한다. 그러면 이웃은 바로 유대 민족 자체이고 원수는 이방인이 된다. 그 이방인은 바로 박해하는 이방인이다.⁴⁰⁾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면 이것도 율법에 호르고 있는 민족주의적 적대성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다.⁴¹⁾

이상에서 예수의 대율법 자세를 다음과 같이 성격화할 수 있다. 첫째는 예수님은 모세 오경을 법질서로 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율법에 의한 처벌이나 재판 등은 안중에 두지 않았다. 둘째, 예수님은 율법에 의한 형식주의를 배격하고 있다. 바리사이파에 대한 그의 비판이 바로 이 점에 치중하고 있다. 셋째, 율법 자체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여 본질적인 것을 선택한다.

정치권력과 충돌

처음에 예수님이 점령세력인 로마제국이나 그 앞잡이인 헤로데 가와의 관계에서 수난사를 빼면 어떤 저항이나 충돌의 흔적이 있느냐는

40) A. Dihle, *Die goldene Regel. Eine Einführung in die Geschichte der antiken und frühchristlichen Vulgärethik*, 1962, S. 116.

41) 안병무, 「율법과 하느님의 뜻」, 『현존』 1969년 8월호, 14면.

물음에서 부정적인 결론을 얻었다. 그것은 적어도 복음서의 기록에 제약을 받는 한 사실이다.

그의 비판의 대상은 바리사이파가 이끄는 유다교임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 예수는 권력이나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인가? 결코 그럴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그의 선포의 초점인 하느님의 나라 도래가 이 역사와 관련이 있는 한 땅 위의 어떤 주권도 그것과 병존할 수 없다. 하느님 나라의 도래 선포는 예언자의 전통에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 복음서는 예수를 한 예언자로 간주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다.⁴²⁾ 예언자의 특성은 거의 예외없이 정치문제에 깊숙이 개입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엘리야, 예레미야, 아모스, 이사야 등의 활동무대는 바로 정치현장이었다. 예수가 예언자의 전통을 이었다면 이러한 면이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예언자 중에는 자기 나라의 멸망을 거듭 천명한 이른바 재앙(Unheil)의 예언자들이 있었다. 저들은 하느님의 심판은 어떤 인간적인 계교에 의해서도 흔들릴 수 없는 것이라는 신념에 차 있었다. 예수도 하느님의 심판을 단호하게 그리고 자주 선언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민족이나 나라의 심판이 아니라 세계 전체의 심판을 의미한다.

그날 그 환난 후에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을 것이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42) 마태 16, 14·21, 11·21, 46; 마르 6, 15·8, 28; 루가 7, 16·7, 39·9, 8·9, 19·24, 19; 요한 4, 19·6, 14·7, 40·7, 52·9, 17.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에게 '표징'을 요구한 것도 예수에게 예언자로서의 전권을 증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마태 12, 38~40·16, 1~4; 마르 8, 11~12; 루가 11, 29~30을 참조.

것이다.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하느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마르 13, 24~27).

이것은 묵시문학적 영향이 농후한 발언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할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특이한 존재와 그 심판은 온 세계에 미친다는 사실이다. 이 심판은 돌연히 올 것이나 그때가 눈앞에 닥쳤다고 한다(마르 13, 32 이하 참조). 예수 당시에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선포하는 이른바 메시아 운동가가 여기저기 있었다.

사람들이 너희더러 ‘보라 그가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말할 지라도 찾아다니지 마라. 마치 번갯불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할 것이다……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의 날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룯의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루가 17, 26~30).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등, 팔고 사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는 등은 로마제국이나 헤로데정권을 연상할 수 있는 표현이다. 세례자 요한은 심판날을 눈앞에 둔 모든 유다인들에게만 회개의 세례를 호소했다. 그러나 예수가 말하는 심판은 온 세계의 심판이다. 이에 로마제국이 예외일 수 없다. 이것이 ‘로마의 평화’(Pax Romana)를 신념으로 한 저들에게 어떻게 용납이 되었을까?

어떤 군주국가와도 마찬가지로 로마사회도 상층계급에서 하층계급으로 내려오는 체제질서를 갖고 있었다. 상층계급일수록 인간가치

가 높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그 가치가 희박해지거나 마침내는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팔레스틴에서도 로마는 종교귀족과 부호 등을 옹호하는 식민정책을 펴나갔다. 그런데 예수는 이 질서를 완전히 전도시켜버린다. 가난한 자, 어린이, 병자, 여인, 세리 그리고 창기같이 그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계층과 자신을 일치시킬 뿐 아니라 압박한 하느님의 나라에서마저도 이 위계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진다. 이미 우리가 본 대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느님 나라는 너희 것이다”(루가 6, 10)라는 선언은 가장 극단적인 증거이다. 이처럼 위계질서, 나아가 가치질서를 완전히 전복시켜버리는 예수가 로마·헤로데 정권에 어떻게 용납될 수 있었겠는가? 예수는 뚜렷하게 선언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마태 11, 28). 루가는 예수가 온 목적은 가난한 자, 포로 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해방하기 위해서라고 선언한다(루가 4, 18). 그 내용은 예수 자신의 행태를 세례자 요한에게 전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루가 7, 22 참조). 나아가 그는 최후의 심판에서마저 심판자 자신이 주린 자, 목마른 자, 방랑자(나그네), 헐벗은 자, 병 든 자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와 자신을 일치시킨다(마태 25, 31 이하 참조). 이는 그의 유명한 최후의 심판 비유에 나타난 사상인데, 그 심판은 바로 세계 전체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분명 현존의 위계와 가치질서를 전복하는 말들이다.⁴³⁾

예수는 통치체제에 대해서 중대한 비판적 반론을 펴나. 예수가 예

43) 타이센은 “가치혁명”이라는 말을 쓴다. 1988년 8월 케임브리지에서 강연한 원고인 G. Theissen, “Jesusbewegung als charismatische Wertrevolution,” S. 1~2; *Der Schatten des Galiläers. Historische Jesusforschung in erzählender Form*, München, 1986, S. 179/차봉희 역, 『갈릴래아 사람의 그림자』, 한국신학연구소, 1988, 238면.

루살렘을 향해 가는 도상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장차 올 나라에서의 자리문제로 다툰 이야기가 있다. 저들은 이 새 나라를 이 세상의 통치체제와 같은 것으로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는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이방 민족들)의 집권자로 알려진 사람들은 백성들을 강제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리고 있다”(마르 10, 42)고 말하고,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주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마르 10, 43~44)고 했다. 이것은 로마제국을 포함한 통치체제의 본질을 예리하게 분석 비판한 것이며, 새 질서는 이러한 통치체제가 전복되어야 한다는 선언이다. 이런 입장이 로마·헤로데 체제에서 어떻게 용납될 것인가?

비록 유다교체제를 겨냥한 것이기는 하나 그의 법에 대한 해석이 위에서 본 바와 같다면 국가가 어떻게 성립될 수 있을까? 비록 우리는 로마·헤로데 세력과의 정면충돌에 관한 기록을 갖고 있지 않으나, 이미 그의 공생애 초기에 바리사이파와 헤로데당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듯이(마르 3, 6) 예수는 기존체제에서는 큰 위험인물로 부각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것이 한낱 교훈이 아니라 많은 민중과 더불어 사는 현장에서 선언되었음에라! 그뿐이 아니라 예수는 결국 로마의 법정에서 정치범으로 사형언도를 받고 그 손에 처형된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예수가 로마제국의 눈에 위험분자로 노출되었기 때문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다음의 수난사 마당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다.